

자본주의 폐해 극복, 불교 공동체에 해답



<불교평론> 창간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전문: 현대 물질주의 문명의 폐해와 양극화 심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현대인들은 상업주의 속에 소비문화의 조류에 끌려 감각과 향락을 즐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불교의 시작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평론>은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8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눈으로 자본주의를 말하다'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의 학술세미나는 총 7명의 학자들이 나섰다. 먼저 기조발제로 최갑수 서울대 교수의 '왜 자본주의를 말해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자본주의와 불교의 접합점과 경제체제 비판과 함께 불교공동체 운동, 또 이상주의로서의 불교에 대한 비판도 함께 대두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집착 버리는 두타행, 출세가 모두 펼쳐야
김광수 한양대 교수는 "불교는 경제활동을 인정해 자본주의 이념을 일정부분 수용하지만 이기적인 탐욕과 이윤의 무한 추구는 적극 경계한다"며 "불교사상의 적극적인 검약과 절제에 의해 소비의 허상이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재화는 해탈을 위한 수단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근면을 통한 검소한 소비활동을 장려한다. 특히 이자를 비윤리적으로 간주했던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이자수입을 인정하고 금융업을 권장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물질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 행위를 가지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라며 "불교의 가치관으로 물질에 대한 의존으로 독립적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두타행을 통해 출세가 모두 물질에 종속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개인적인 수행과 공동체 운동을 함께 펼쳐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대중빈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보호, 농업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쟁 없는 사회,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경쟁 없는 사회는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인 안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으며 이를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생산적인 방향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능한가' 발제를 통해 "불교경제학은 인간의 순수성에 주목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가치일 뿐"이라며 "이 가치가 주목

29일 자본주의·불교사상 관계 모색 김광수 "불교정신으로 소비허상 극복" 민경국 "사회 근원, 인간 이기심 인정"

되는 것은 소규모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우리사회는 자생적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는 행동규칙들을 형성해왔다"며 "오늘날에는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분업과 협업이 발달했고, 우리 사회를 이루었다. 이런 사회구성의 원칙과 규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인간 본성의 이기심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강제적인 장치는 인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이상주의의 도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정부 개입 등을 특정그룹에 대한 법적 편애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유주의를 해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21세기 시대정신 세우는 실천 윤리 필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 사례 외에는 불교가 자본주의와 만난 경우는 전무하다"며 "오늘날 한국불교는 자본주의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만나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불교자본주의든 불교사회주의든 다양한 실험을 과감히 시도하고 또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근 '하트 스토밍(Heart Storming)'을 기업 생산성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팔정도의 정념을 조직 및 기업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며 "일시적 형태의 소비공동체 원형을 가지고 있는 승가 원리가 자본주의 비판에서 본래정의 및 소비윤리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끝으로 유 교수는 "21세기 한국불교는 육바라밀과 같은 실천적인 행위윤리를 제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21세기 시대정신

유승무 "불교사상 사회 접합 전무해" 박병기 "자비윤리, 자본주의에 제공" 유정길 "다양한 공동체 시도 바람직"

을 세우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도 "돈을 애써 외면할 필요도 없고 필요 이상의 돈에 집착하지도 않는 무애의 지혜와 그것에 근거한 자비의 윤리가 불교가 자본주의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약"임을 밝혔다.

불교공동체 운동에 자본주의 대안 있다

유정길 지혜공우협동조합 이사장은 6가지의 불교공동체 예시를 통해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제안했다.

유 이사장이 먼저 예시로 든 공동체는 '공동소유 공동체'다. 유 이사장은 "공동소유 또는 무소유 공동체는 초기불교의 승가공동체와 이를 현대사회에 구현하려고 한 정도회가 있다"며 "정도회의 경우 현재 서초동에 50명, 문경에 70명이 함께 초기공동체의 삶을 기조로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 공동체에서는 각종 수련이 진행되며 사회운동으로 환경기구인 '에코붓다'를 두고 쓰레기 제로운동, 빈그릇운동 등의 캠페인과, 평화인권기구인 좋은벗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두 번째 공동체로 '공동주거 공동체'를 예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공동주거는 생각이 맞는 이들끼리 시도해 볼 수 있다"며 "영동 백화마을은 40가구가 모여 자체교육 등을 하는 공동체며, 안성 '들꽃피는마을'도 2년 동안 40회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유 이사장은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소통에 있다"며 "이를 통해 대소사를 함께하며 자체 규약인 정규도 만들어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예시는 마을공동체다. 유 이사장은 실상사의 한생명공동체 등 마을공동체가 농촌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분권과 주민자치의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이사장은 "사찰의 불사를 한다면 시내에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사업을 우선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생산물부터 폐기물까지 지역에서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네 번째 공동체로 '협동조합'을 들며 사업적인 성격과 동시에 공공결사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섯 번째 공동체인 '네트워크 공동체'는 상호보조하며 협력하는 신도들 간의 공동체로 사찰과 신도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끝으로 유 이사장은 '사찰과법당의 신도공동체'를 통해 사회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종교공동체가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유 이사장은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빈 공간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붕괴되어 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종교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불교평론>은 이날 열린 세미나의 논문을 특집으로 펴낸 창간15주년 기념 59호를 펴냈다. 59호에는 특집 논문과 함께 △용 심리학과 불교사상(이준내) △종파로 보는 티베트불교(이종복) △사랑, 지혜를 만나자(정경일) △소득 내 한국불교와 신도 현황(만프레드 후터) △나의 선시독법(신승철)이 수록됐다.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에 돌아와야”

월정사, '오대산 사고와 사고본 역사적 가치' 세미나

불교계 주도로 수년간의 협상 끝에 일본으로부터 환수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이 유물들의 원래 보관처인 오대산 사고와 사고본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동국사학회(회장 이도학)는 8월 28일 '오대산 사고와 사고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도학 동국사학회 회장은 "오대산사고와 사고본은 왜란에 의해서 모든 실록이 소실되고 전주사고본만이 남은 상태에서 조성됐다"며 "왜란 당시 공이 컸던 사명 대사의 인연처인 오대산은 역사 유물의 안전한 보관처이기도 했지만, 민족속소로서의 의미가 커 보관처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도 '오대산 사고의 입지 배경과 사명당' 발표를 통해 "사명 대사는 월정사를 중창하고 스스로를 오대산인이라 칭했다"며 "오대산사고가 건립된 이후 주변은 금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승유역부의 파고를 넘어 월정사도 안정적인 발전을 보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대산 사고의 옛 모습

이어 강민석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의 '오대산 사고의 수직승도 운영' 등 총 6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월정사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를 토대로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동계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이고 국민적인 화합의 대축제에 있어서, 실록과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평창을 넘어서 강원도민 전체의 바람"이라며 "젊은이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록물 화상산 정보화 전시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근대 불교문화재, 대거 등록문화재 예고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등 2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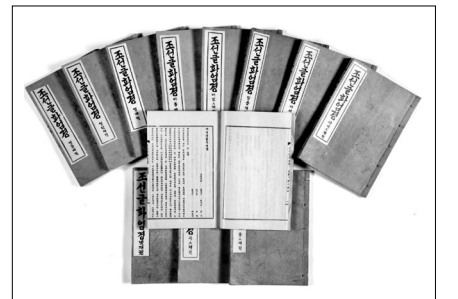
최근 근대 불교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에 불교문화재가 대거 이름을 올릴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8월 28일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등 불교 유물 21건을 문화재 등록(등록문화재) 예고했다.

△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 △ '통영 용화사 괘불도' △ '진주의 곡사 괘불도' △ '용성 스님 역(조선글화엄경)' 등이다. 이중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은 1896년 제작된 것으로 불화의 초본을 바위에 옮긴 것 같은 조각으로서 희소성의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1936년 제작)과 '공주 신원사 소림원 석고미륵여래입상(1935년 제작)'은 한국 근대 조각의 대표 작가인 김복진의 작품으로 근대 신재료인 석고를 이용한 제작기법이 근대성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통영 용화사 괘불도(1914년 제작)'는 크기가 10m에 달하는 대형의 그림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적 기법을 담고 있으며 '진주 의곡사 괘불도(1938년 제작)'는 근대기 동양화가 정종여에 의해 제



용성 스님 역, <조선글화엄경>

작된 유일한 괘불도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 두 괘불도는 밝은 색감과 환상적인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다.

'용성 스님 역 <조선글화엄경>'과 '용성 스님 역 <조선어어음경(朝鮮語佛嚴經)>'은 3·1운동 당시 용성 스님이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경전으로 한글자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의 대중화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求禮 鰲山 四聖庵 一圓)'과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괴산 화양구곡(槐山 華陽九曲)' 두 곳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나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재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봉사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처명)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리게 지명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힘찬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